

# 우량 종돈 생산에 노력 기울일터



윤 덕 영  
(덕영종돈장)

금년은 양돈을 하는 모든이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무덥고 긴 여름이었던 것 같다. 그것도 모자라서 소자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더위를 채 잇기도 전에 당한 무서운 수마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응어리가 되어 가슴에 남아있는 지금, 양돈 경기의 회복이라는 희망을 학수고대하며 조일대로 조여 맨 허리띠를 마지막 힘을 지탱하며, 돈육 소비 추세와 도축장의 도매 가격에 기대를 걸고 있자니 곳곳에서 숨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니 한심한 마음뿐이다.

또한, 학원 사태가 계속되어 과연 어디에 희망을 걸고, 어느 곳에 의지하며 양돈을 해야 옳은지 판단이 서지않아, 글이 제대로 나열되지 않으니 누구를 원망하라...

흔히들 하기좋은 말로 農者之天下地大本이라고 하는데, 양돈업도 1차산업인 농업의 일부이니 “晝人事 待天命”이라고 하늘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속으론 순응을 거부하며 축협과 농수산부는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곳인가 물어보고 싶으니 어찌면 좋은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근자에 양돈협회가 정부와 협회 회원들과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인상과, 축산법 개정으로 인한 순수 양돈업체의 권익에 명년도부터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금년은 보내야 된다는 오랜 습관적인 복종심이 또 한번 희망찬 새해를 고대하게 된다.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기업 양돈의 잘 훈련된 조련사로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나의 조그만 순수 종돈장을 만든지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 나의 종돈장은 4명의 식구와 400여 두의 사랑스런 돈공들이 있다.

이들이 불황에도 아랑곳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고 사랑스런 마음에 저들에게 전대로 불안함을 보여선 안되겠다는 각오를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다짐하며 금년을 정리해 본다.

처음 생산 된 종자돈을 종돈 능력 검정소에 보내고 나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갓 난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부모 마음으로 초조하게 나날을 보내며 일했다.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 선발지수가 199와 195가 나왔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전문종돈장으로 발전시켜 우량종돈을 생산